



# Raonatti

## 지구마을 방범대 월별보고

October & November

## 01. 원데이클래스 진행 및 강사님 미팅 (10/15)



광명역에 방문하여,  
강사님이 진행하시는 면라이너 만들기 클래스에  
참여하여 면라이너를 만들고, 대략적인 원데이  
클래스 진행방식과 준비물품등에 대해 미팅.



직접 제작해본 면라이너

## 02. 동대문종합시장 자재 구입 (11/2)



동대문종합시장에 방문하여 원데이클래스 면생리대 키트에 필요한 용, 마, 워싱광목, 티단추를 포함한 자재구입.

## 03. 2차 대면 회의 진행(11/3)

생리대 제작에 필요한 자재들 가격을 알아보고, 거래처 또한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 라운아띠 프로젝트 2차 회의록 (11/3 대면)←

지구마을방법대팀은 11월 3일 팀원 전원이 모여 청량리에서 식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함←

작성자: 한주은←

참여자: 전원(한주은, 전은아, 홍지영, 홍수현, 권혁민)←

←

#### 1) 원데이 클래스 운영계획←

- 장소: 동대문구사회복지관, 동작구사회복지관, 합정 YMCA본부 (이번주 중으로 확정해야 함)←

- 날짜 및 시간: 11/19(전원참여, 라운아띠 단복필수 착용), 11/26(주은, 혁민, 지영),

어떤 작업을 원하시나요? 12/3(주은, 수현, 은아) 각각 1시부터 6시 사이 3시간 예정←

- 역할분담←

-PPT제작(분량은 최대 10분정도): 전은아 (11/18일까지)←

-홍보포스터 제작 및 1차 책자 제작: 홍수현, 권혁민←

-대본 작성 및 클래스 발표 진행: 한주은, 홍지영 (11/14일까지 대본완료)←

←

#### 2) 준비물품 및 예산←

- 오프라인 구매 및 준비: 책자를 제외한 물품들은 11/7일 동대문종합시장에 방문하여 구매할 예정←

쪽가위, 재단가위, 실, 바늘, OPP 포장종이, 업사이클링 천(자투리 원단, 셔츠), 생리대 제작 책자, 마(3마), 용(3마), 워싱광목(3마), 티단추(100개)←

←

- 온라인 구매 및 준비: 티단추 기계, 미싱기 렌트, 생수(330ml\*24개), 다과←

←

- 감사 섭외비: 회당 30만원, 추가적으로 원데이클래스 진행 전 미리 원데이클래스 진행 건 20만원해서 총 110만원(30\*3+20).(통장사본 및 신분증 받아서 본부에 넘긴상황, 감사비 지급은 본부 쪽에서)←

## 04. 샘플제작(11/5)



면생리대 샘플제작 및  
도안제작, 손바느질과  
미싱질 연습

## 05. 동대문종합시장 부자재 구매(11/7)



미싱바늘, 재단가위, 쪽가위, 실, 바늘, 초커 등 면생리대 원데이클래스에 필요한 부자재 구입

# 지구마을방법대 팀원 월별평가

## 주은

시험기간 이후, 계획만 세워뒀던 것들을 시행으로 옮기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원활하게 강사님을 섭외하고 장소를 대관하는 등 어느정도 계획한 것을 달성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 다만 시험기간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많은 신경을 못썼던 점이 아쉽고 밀린부분들은 11월달 안으로 최대한 완료해야겠다.

## 수현

지난 10월은 9월에 세워 둔 계획을 하나씩 실행시켜 가는 첫 달이었다. 원데이클래스를 이끌어주실 선생님을 찾아 다니고, 또 원데이클래스 체험과 강사 컨택을 위해 광명시까지 ktx를 타고 가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런 일들을 대학교 1학년인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 불안함이 더 컸는데, 일들이 하나씩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만들어 낼 선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간다. 지금은 11월과 12월에 열릴 원데이클래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

## 지영

프로젝트가 점점 진전을 보이고 있는듯해 뿌듯했다. 처음엔 정말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앞섰고, 중간고사 준비로 인해 프로젝트에 신경을 덜 썼었다. 하지만 이후 원데이 클래스 강사님 섭외와 원데이클래스를 위한 자재를 준비하고 난 뒤에는 프로젝트가 70%는 진행된거 같다는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직접 부딪혀보고, 실패와 성공을 맛보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10월,11월이었다.

## 은아

이번 달에 한 활동은 보다 우리의 프로젝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 프로젝트가 지닌 장점도 많지만, 그만큼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걱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달에 끊임없는 회의를 통해 우리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면생리대를 직접 만들어보고, 원데이클래스를 열기 위한 공부를 진행하며 알아간 것 또한 많았다. 특히, 전문가에게 면생리대에 대한 조언과 강사님의 열정을 보며 반성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다. 10월은 우리 전체 프로젝트 기승전결 중 '승'에 해당한다고 느꼈다. 11월은 우리의 목표 달성 결정의 순간이 되리라 믿는다.

## 혁민

이번 달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로 통장주로서 계좌이체를 해주거나 결제 내역을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학교 수업 시간에 계좌 이체가 필요하면 도중에 이것까지 담당하게 되어 약간?? 힘들이었지만 다른 애들도 각자 힘든 부분이 존재하다고 생각하고 조원 친구들이 하는 일이 더 많아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